

38. <보기>를 참고할 때,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임장군전」을 읽은 당시 독자층은 책의 여백과 말미에 특정 대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다양한 필사기를 남겼다. ‘식자층’은 “㉠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워 붓을 멈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거나 “㉡ 잡혔으니 가히 아프고 괴로우며 애석하네.”라며 경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평민층’은 “㉢ 슬프다, 임 장군이여. 남의 손에 죽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랴.”라며 숙명론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그 아니 가엾지 아니리오.”라는 안타까운 반응을 남기거나, “㉤ 사람마다 알게 하기는 동국충신의 말입에 혹 만민이라도 깨달아 본받게 함이라.”라는 필사기를 남겼다. ㉠, ㉡, ㉢은 경업이 죽는 대목에, ㉣과 ㉤은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되는 대목에 남아 있는 필사기이다.

- ① [B]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자점의 행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군.
- ② [A]를 읽은 식자층은, ㉡을 통해 경업의 시련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군.
- ③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경업의 죽음이 자점 때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죽음에 대해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④ [A]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자점을 비판하면서도 그의 행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⑤ [B]를 읽은 평민층은, ㉤을 통해 충신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답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39.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40.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41.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42.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들이 있겠군.
-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두 명제 A,B가 있다고 가정할시

A	B
O	O
X	X 가 가능하지 않은 관계

즉

O	X
X	O 는 가능한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
(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하고 갈 수 있는 이야기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 이라고 한다.

두 명제 P와 ~P가

O O 가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무모순율 이라고 한다고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에 주목 하면 앞의 내용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해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내포한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충분히 수긍하고 넘어갈수 있는 문장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한다.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했는데 바로 가능세계다

그럼 앞으로 가능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능세계가 무엇인지 설명해줄 것은 자명한데 ‘가능세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얘기해줄 것 임 을 예측하는데 무리가 없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가능세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선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해주고 있다.
이 문장을 다 읽으면서 도대체 ‘가능세계’가 무엇인지 계속 궁금해 했어야 한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앞문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Q이면 Q이다’는 필연적인 명제들의 예시인데 이런 예시를 활용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를들어, 앞문장에서 나온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를 Q의 자리에 넣어보는 것이다.

“만약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면 다보탑은 있다”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가능세계’가 뭘지 궁금해 했다면 훌륭하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이 구체화되어 나올것인데 이 구체화되어 나온 표현들이
가능세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얘기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예시가 나올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술술 읽히는 문장이라 따로 특별한 행동영역이나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나온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의 예시가 이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뒤에선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을 통해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을 잘 이해시켜 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에 주목하며 뒤에는 뭔가 좀 다른 얘기가 나올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까 ‘Q이면 Q이다’에 다보탑이라는 예시를 박아 넣었듯이

이번에는 A,B 에 각각 예시를 박아 넣으면 된다.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내가 8시 기차를 탄 것이 거짓인 경우에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럼에도’ 앞에 문맥상 하나가 생략되어 있다.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도)

왜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
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을 통해서 일상적인 표현들을 설명해준다고 했으니 납득할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러한 예이다.

응~그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 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에는 예시를 때려 박으며 읽어야한다.

(일반적으로, 내가 8시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제 시간에 도착한 가능세계가 제 시간이 도착하지 못한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8시 기차를 타지 않은 경우에, 만약 8시 기차를 탔다면 제 시간에 도착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여전히 **가능세계가 무엇인지 모른다.**

일단 **네 가지 성질**에 대해 말해줄 것이니 이에 대비하자.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이제야 가능세계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가능세계=가능한 세계라고 한다.

뭔가 허무하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냥 그런가보다 정리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정확한 이해를 하려고 몰두하지말자.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는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sim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sim P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모순관계중 하나는 반드시 성립한다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넷째도 그냥 읽고 정리해두면 무방하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납득하면서 읽는데 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문장 역시 그런가보다 하고 읽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